

“2024 수능 반수생 유입 역대 최고 고3·재수생 성적 영향 크지 않을 듯”

종로학원, 수험생 2058명 표본점수 추측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재수생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수생이 인문계 고3 수험생과 기존 재수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킬러문항’ 배제 등에 영향을 받아 반수생이 수능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응시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26일 종로학원이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모두 치른 인문계 수험생 2058명의 표본점수를 2024학년도 수능까지 추적한 결과 “인문계의 경우 반수생이 가세했지만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본 고3 수험생과 기존 재수생들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통 반수생은 학교에 다니다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6월 모의평가보다 수능에 응시한다.

종로학원은 6월 모의평가 수험생의 수능 등급이 전년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유입된 반수생 중 상위권이 예전보다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인문계열 수험생의 경우 국어·수학·탐구영역 3개 과목의 등급의 합 6등급 이내가 되는 비율은 수능

인문계 수험생 점수 비교하니 반수생 성적 신통치 않아 킬러문항 배제로 갑자기 ‘반수’ 증가...자연계 소폭 하락

가채점 결과 14.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모의평가(9.6%)보다 4.7%p 증가했다.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과 전년도 6월 모의평가를 같은 방식으로 2082명의 성적을 같은 방식으로 대조해봤을 때 국·수·탐 비율 합이 6등급 이내가 되는 수험생은 6월 모의평가 때 16.4%였다. 이는 수능 때(11.9%)보다 4.5%p 하락했으며 학원가에서는 상위권 반수생 유입으로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인문계열 반수생의 수학 성적도 대체로 낮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수학의 경우 6월 모의평가 때는 같은 표본 집단에서 11.4%가 2등급 이내였으나, 본수능 가채점 때는 23.4%로 증가했다.

반면 국어는 같은 기간 26.4%에서 20.9%로, 탐구영역도 45.0%에서 40.4%로 낮아졌다.

종로학원은 “인문계의 경우 반수생 유입으로 인한 영향은 6월 모의평가 때보다 수학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국어, 탐구는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반면 자연계열 학생은 올해 6월 모의평가 때의 표본집단 중 국·수·탐 등급합이 6등급 이내가 되는 비율이 14.5%에서 수능 때는 13.5%로 소폭 하락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반수생은 자연 학생의 수능 수준이 인문 학생보다 높고, 인문의 경우 오히려 반수생이 들어오면서 기존 2등급 이내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를 오히려 상승시켰다”며 “고3 수험생과 기존 재수생들은 상대적으로 성적대가 낮은 반수생들의 가세로 등급이 오르거나 최소한 성적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능은 50만4588명이 지원했는데 이중 졸업생과 기타 지원자를 합한 비율은 전체 지원자 대비 35.3%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반수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원(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접수하지 않고 수능 때만 접수)은 8만 9642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주 동학군, 1027명 희생 첫 확인

박용구 고려대 교수 논문서 밝혀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에서 1027명에 달하는 농민군이 희생됐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박용구 고려대 사학과 교수는 26일 ‘나주동학농민혁명의 확산지에 대한 연구-나주목사 민중렬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나주동학농민혁명 사죄비 건립추진위원회 주최로 27일 나주시 나빌레라 소극장에서 열리는 ‘나주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박 교수는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목에서 희생된 동학군은 62명, 나주 동학농민혁명 5대 전투 당시 희생된 동학군 735명을 합하면 관군에 의해 희생당한 동학군의 수는 모두 797명에 달한다”며 “이후 일본군 후비보병 19대에 의해 230여명의 동학농민군이 처형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나주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은 모두 1027명이며, 일본군에 희생된 농민군을 제외

하고는 모두 1893년 11월 20일 나주 목사(牧使)로 부임한 민중렬에 의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관군에 의해 희생된 나주 동학농민군의 규모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동학혁명으로 불리는 나주의 5대 전투(서성문 전투, 광주 침산·사창 전투, 용진산 전투, 장등참·고막포 전투, 남산촌 전투)에서는 농민군의 저항이 격렬해 피해가 더 컸다. 동학군의 무기는 죽창, 몽둥이, 창 등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관군의 대안포(쇠나 돌로 만든 둥근 탄알을 넣어 쏘는 화포)나 장대포, 천보조총 등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이 ‘갑오군정 실기’ 등의 기록으로 확인됐다.

관군에 붙잡힌 동학군은 참수형, 화형, 총살 뿐 아니라 장등참·고막포 전투에서는 발로 짓밟혀 처참하게 죽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관군 부상자나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북구 중외근린공원 민간공원 부지 통일신라~일제강점기 유물 무더기 발굴

고려시대 청자 접시 등 109점

광주시 북구 중외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유물이 무더기 발굴됐다.

26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재)영해문화유산 연구원이 진행한 광주 중외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부지(매곡동 379번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유물 109점이 출토됐다.

유물 발견 장소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부지로, 지난해 시굴조사에서 매장 문화재가 확인된 장소다.

출토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1점(병), 고려시대 4점(병, 청자 접시, 청자 완, 청동 손가락), 조선시대 63점, 일제강점기 41점 등이다.

조사대상 부지의 윗부분에서는 주로 통일신라, 고려 유적이 발굴됐고 아래에서 조선, 일제강점기 유적이 발견됐다. 일제강점기 벽돌가마도



통일신라시대 병, 고려시대 청동 손가락

확인됐다. 영해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로 해당 부지가 통일신라 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주거지로 사용돼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문화재 매장 발굴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부지 착공이 미뤄졌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넓은띠큰바다뱀’



‘밤수지맨드라미’

여수에서 ‘살모사의 20배 독’ 바다뱀 발견

‘넓은띠큰바다뱀’ ... ‘밤수지맨드라미’ 등 열대·아열대성 생물도

여수 해역에서 살모사보다 20배 이상 강한 독을 품은 바다뱀이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섬지역 수중생태계 조사 결과 여수해역에서 ‘넓은띠큰바다뱀’과 ‘밤수지맨드라미’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넓은띠큰바다뱀은 바닷속에서 생활하나 육지에

서 번식과 산란을 하는 코브라과 해양파충류다.

넓은띠큰바다뱀은 여수 향일암에서 남쪽으로 34km 떨어진 무인도(소간여) 해역에서 활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밤수지맨드라미는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 발견 됐고, 산호충류에 속하며 밤송이를 닮고 수심 5~25m에 서식하며 수

온에 민감한 해양생물이다.

이들은 각각 일본 남부 오키나와 또는 타나베만과 인도양 등에 주로 서식하는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로 기후변화로 수온이 올라 전남 바다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연구결과 제주도 해역 표층수온이 36년간 2도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에 의해 수온이 상승하고 난류가 확장되면서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이 국내 해역으로 유입·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

“로봇 회사 가상화폐 투자” 30억대 사기 모자 구속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여·63)씨와 아들 B(3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존에 대기업이 만든 로봇 제품을 외형만 바꿔놓고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며 로봇 전시회나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회사가 전국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해당 로봇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마쳤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라면서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경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